**3.1운동 100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선언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기미년 3.1운동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서 태극기를 만들고 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구는 200만, 전 인구의 10%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계엄령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갈 각오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길거리로 뛰어 나갔습니다.

결국 26년 뒤 1945년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라를 되찾게 되었지만 나라는 반쪽으로 갈라지고, 동족 간에 전쟁을 치렀고 지독한 가난 때문에 원조 없이는 나라 살림을 꾸려 갈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뒤 반 세기 만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년 전 그때를 되돌아보고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오늘을 계기로 제2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한번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먼저 100년 전 그때 남녀노소, 좌우파, 지역 구분 없이 국민 전체가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뭉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보수로 진보로, 지역감정으로, 세대간 갈등으로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둘째,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같은 말을 쓰고 한 조상을 가진 같은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 오고가지도 못하는 이런 비극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다행이 평화의 따뜻한 바람이 한반도에 불고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완전한 대한독립을 반드시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힘을 기르자고 역설하셨습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힘을 길러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강대국에도 휘둘리지 않는 힘 있는 나라,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구가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마시고 먹고 살아야 할 공기와 물이,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어제 오늘의 뉴스가 아닌지 오래 되었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빨대 꽂은 거북이가 사회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이제부터 하늘과 땅, 자연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인간이 공존하는 상생의 문화를 꽃피워야 할 때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구와 뭇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부터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2019. 3. 23 김춘식